

회계인의 문화적 특성과 윤리개발 수준에 관한 연구 ·

김 남 면*

A Study on the Accountants'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the Ethics Development Level

Nam-Myun Kim*

요 약

본 연구는 회계와 문화간의 관련성 대한 연구이다. 연구목적은 우리나라의 회계인 집단은 비회계인 집단과 비교하여 어떠한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고 우리나라 회계인 집단의 윤리개발 수준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의 회계인집단은 비회계인 집단과 권력편중, 불확실성 회피, 남성주의와 여성주의, 장·단기적 관점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와 문화에 관한 본 연구는 회계실무나 회계기준설정 및 회계교육 등에 유용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This paper is the work connected with accounting and cul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Korean accountant groups have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ethics level compared with non-accountant groups. The results of this paper show that power distance, uncertainty avoidance, masculinity and femininity, long-term and short-term oriented differences compared with accountant groups between non-accountant groups. This paper is about accounting and korean culture would utilize useful data accounting practice and accounting standard establishment and accounting education.

* 대전보건대학 판매관리과 조교수
본 논문은 1999년도 대전보건대학 학술연구지원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I. 서론

최근 IMF체제 이후 많은 사람들은 회계인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하여 의문을 품게 되었으며 회계인이 수준 높은 윤리의식을 유지하면서 회계실무를 수행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회계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인간을 위한 발명품이며 역사적 조건에 따라 나타난 사회적 산물이다. 따라서 회계는 하나의 사회적 제도로써 인식하지 않으면 안되며 사회적 제도의 틀에 따라 회계표현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이 회계는 역사적 조건에 따라 나타난 사회적 산물이기 때문에 이를 관찰하는 다양한 사고에 따라 상이한 관점에서 관찰하여 그 나름대로의 이론을 체계화하게 됨으로 문화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게 된다.

회계는 사회적 제도로서의 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제도에서도 행해지고 있다. 사회적 제도는 경제적, 정치적 제도와 필연적으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사회적 제도의 일부로서 인식되는 회계는 경제적, 정치적 제도를 반영한다. 다시 말하면 회계는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영향을 받는다. 회계보고서의 작성자나 이용자는 그들의 개인적 태도, 사건이나 정보의 인식, 환경에 대한 인지, 회계정보의 사용 등을 통하여 회계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 회계정보를 목표로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활동에 인간이 사용하려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그것이 고안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외국에서는 1970년대 이후부터 회계에 있어서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회계를 하나의 기술로서만 취급하여 회계의 수리적인 측면을 다루는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회계와 문화 및 회계인의 윤리와 이에 대한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까지도 회계와 문화라는 말이 생소하게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회계와 문화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로서 우리나라 회계인 집단은 비회계인 집단과 비교하여 어떠한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고 우리나라 회계인 집단의 윤리개발 수준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회계는 언어와 법률과 마찬가지로 환경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제도적 산물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치·경제·법률·문화 등 환경적인 요인과 회계시스템의 개발에 관련된 이론 또는 모델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Hofstede 이후 몇몇 학자들에 의해 논의되고 있는 중이다. Hofstede(1980)에 의하면 회계의 사회적 제도의 틀은 그 사회나름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적 환경과 관련하여 형성되어지고 그러한 환경속에서 평가되어지기 때문에 회계에 관한 이론이나 회계제도, 회계교육이 국가의 환경에 따라 나름의 독특한 특징에 맞추어 형성되고 실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최근에는 회계의 사회·문화적 차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회계실무는 특정 시대에 있어 특정사회에 적합하도록 진화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유럽과 북미의 회계시스템을 수용하고 있다. 문화와 회계의 관련성을 연구한 Hofstede(1987)는 문화를 어떤 사람의 범주와 다른 사람의 범주간에 구별되는 마음속에 세계진 집합적인 각인(The collective programming of the mind)으로 정의하고 문화는 사회적 맥락이고 소프트웨어이며 보이는 것도 의식적인 것도 아니라고 했다. Hofstede는 특정한 한 국가문화에 근거한 회계이론이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는 국가들에게 일반화되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고 보고 대규모의 연구를 통하여 국가문화의 차이를 구분해 주는 4개의 문화차원을 밝혔고 문화차원에 따라 국가들을 몇 개의 집단으로 그룹화 할 수 있게 되어 국가마다 문화적 차이가 명백히 있음을 보여 주었다.

Harrison과 Mckinnon(1986)은 기업보고규정과 회계정책형성에 대한 새로운 전망으로 '문화와 회계변화'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것은 기업보고규정과 회계변화의 과정연구를 위해 문화와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틀을 제시하는 연구로서 그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틀을 단지 한가지 환경(국가문화)의 인지가 특별

한 국가 속에서 회계실무에 환경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많은 연구에 있어서 결정적인 출발점이 되었다. Gray(1963)는 중등교사, 회계인, 기술자를 대상으로 회계인의 특징을 조사하는 연구를 실시한 결과 회계인은 성취, 과시, 지배, 인내력에서 대단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Gray는 회계인의 가장 큰 특징은 대단히 높은 고군분투형이며 회계인은 일반적으로 어떤 경직된 견해를 보이기 때문에 변화에 저항하고 다른 사람의 신념과 태도에 영향을 끼치려고 애쓰는 자라고 한다. 또한 회계인은 위신을 중요시하는 반면에 사회적 보상에 대하여서는 중요한 의미를 두지 않으며 일의 결말을 고집하기 때문에 일이 끝날 때까지 일을 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Baker(1979)는 회계인의 특징을 조사하기 위하여 회계전공자와 비회계전공자를 대상으로 가치차이 조사를 하였다. Baker는 가치체계가 잠재적인 변화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 문화의 지배적인 규범을 인성 가치체계에 비해 비교적 연구 고착 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여, 회계인의 특징에 관한 연구들을 서로 합성하고 또한 비교적 새로운 구조의 연구로 계획하여 회계전공자와 비회계전공자간의 가치차이를 조사하였다. 회계전공자는 안정된 생활, 야망, 청렴, 책임감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으며 반면에 미의 세계, 지혜, 상상력은 낮게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회계인이 일반적으로 타전공자에 비해 가정수준이 낮은 출신이라는 것과 삶의 미학적 측면에는 관심이 없고 틀에 박힌 형식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III. 연구설계

본 연구는 회계인의 문화적 특성과 윤리개발 수준에 관한 연구로서 우리나라의 회계인 집단이 비회계인 집단과 비교하여 어떠한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회계인 집단의 윤리개발 수준을 분석하고자 한다. 문화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Hofstede(1980, 1991)와 Hofstede 및 Bond(1988)가 제기한 국가문화의 차원을 이용한다.

이들 차원은 권력편중(Power Distance), 불확실성 회피(Uncertainty Avoidance), 개인주의와 집단주의(Individualism과 Collectivism), 남성주의와 여성주의(Masculinity와 Femininity), 장·단기적 관점(Long-term과 Short-term orientation)이다. 또한 회계인의 윤리개발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Kohlberg(1984)가 개발한 윤리적 개발수준 6단계를 제시한다. Kohlberg(1958, 1984)는 개인의 윤리적 개발수준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전인습(preconventional) 수준에서 시작하여 인습(conventional)수준으로 상향 이동하고 최고의 수준인 원칙적 또는 후인습(principled or postconventional)수준으로 이동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들을 본 연구의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1. 연구가설

1.1 권력편중(Power Distance)

권력편중은 제도와 조직 내에서 권력이 불공평하게 분배되는 사실을 수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권력편중이 높은 사회(아시아,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관리자가 전체적 또는 온정적 의사결정을 주로 하고 부하는 지시적 또는 설득적인 관리자의 유형에 만족한다. 그러나 권력편중이 낮은 사회(미국, 서유럽 국가)에서는 관리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부하와 합의하에 결정하려고 하고 부하는 참여적인 상사에게 만족을 느낀다. 이 차원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사회가 불균등을 처리하는 방법이며 이는 조직과 제도를 구성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첫 번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가설 1 : 회계인은 권력편중에 있어서 비회계인과 차이가 있을 것이다.

1.2 불확실성 회피(Uncertainty Avoidance)

불확실성 회피는 불명료하고 애매 모호한 사안에 직면했을 때 사회구성원들이 느끼는 두려움 또는 염려의 수준을 의미한다. 불확실성 회피의 측정요소는 규범 지향성(rule orientation), 고용안정(employment stability), 스트레스(stress)이다. 불확실성의 회피가 낮은 사회에서는 애매 모호성에 대하여 대단히 관대하며 보다 쉽게 위협을 받아들일려고 하고 어렵게 일하려 하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장래에 대한 걱정이 없는 자연스런 경향을 가진다. 이에 비하여 불확실성의 회피가 높은 사회에서는 낮은 사회들보다 법률이 더욱 엄격할 것이며 안정을 추구하

려고 하고 위험을 회피하려고 한다. 불확실성 회피는 사회의 조직과 제도를 구성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두 번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가설 2 : 회계인은 불확실성 회피에 있어서 비회계인과 차이가 있을 것이다.

1.3 개인주의와 집단주의(Individualism와 Collectivism)

개인주의는 사회 구성원 각자가 자신이나 그들의 직계가족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집단주의는 사회 구성원들이 자기 가족이나 종족 및 집단에 대한 종속감이나 충성심이 강하여 자신의 이익보다는 종족 또는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주의가 강한 사회의 특징은 직업이동이 심하고, 개인의 능력을 우선시 하며, 조직에 대한 개인의 참가가 주로 타산적이며, 경쟁원리에 의하여 승진하게 되며, 가족제도는 대부분 핵가족화이며, 서구의 부국이 대부분 개인주의의 사회이다. 집단주의가 강한 사회는 직업이동이 적고, 전통주의적인 원리가 강조되며, 조직내부에서의 승진은 연공서열에 의하며, 대부분 가족제도는 대가족이며 아시아, 아프리카의 빈국이 대부분 집단주의 사회이다. 이러한 집단주의는 조직의 조화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고 조직의 명성을 위하여 상사의 부당한 행위를 묵인한다. 따라서 세 번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가설 3 : 회계인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에 있어서 비회계인과 차이가 있을 것이다.

1.4 남성주의와 여성주의

(Masculinity와 Femininity)

남성주의와 여성주의는 부양적, 즉 양육(여성적)가치와 단정적(남성적) 가치를 강조하는 문화의 정도로 측정한다. 이것은 또한 성적 역할의 차이로도 구분할 수 있다. 성적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는 사회는 남성주의의 사회이며 성적 역할이 불분명한 한 사회는 여성주의 사회이다. 남성주의의 문화에서는 공격적이며 단정적이고 돈과 일의 성취에 관심이 많고 쟁취를 통해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비해 여성주의의 문화에서는 순응적이며 겸손, 약자보호 및 생활의 질을 생각하며 의견조정을 통하여 문제해결을 하려는 것이 특징이다. 이 차원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사회적 역할을 성별로 배분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네 번째 연구가설을 다음

과 같이 설정한다.

가설 4 : 회계인은 남성주의와 여성주의에 있어서 비회계인과 차이가 있을 것이다.

1.5 장·단기적 관점

(Long-term과 Short-term orientation)

장기적인 관점은 공자의 가르침에 뿌리를 두고 있는 동양의 특징적인 요인이다. 장기적인 측면에 관련된 가치특성으로서 미래를 지향하는 근검절약(저축)과 인내를 들 수 있고, 단기적 측면의 가치특성은 현재와 과거를 지향하는 전통중중과 사회적 책무달성 등이 있다. 이 상에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최근 동남 아시아 지역의 경제발전의 요인이 바로 공자역학(confucian dynamism)으로 요약되는 이 가치체계로서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에 광범위하게 깔려있는 환경적 특성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다섯 번째 연구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가설 5 : 회계인은 장·단기적 관점에 있어서 비회계인과 차이가 있을 것이다.

1.6 윤리개발 수준(Ethical development level)

윤리적 개발이론은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갈등상황에 직면했을 때 윤리적 개발수준에 따라 행동 방식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해 준다. 회계인들은 자신의 윤리적 개발수준에 따라 회계실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윤리문제를 상이한 방식으로 해결하려 할 것이다. 윤리적 개발수준이 전인습의 수준에 있는 회계인들은 자기이익의 극대화 내지 자기손실의 최소화라는 관점에서 행동한다. 윤리적 개발수준이 인습수준에 있는 회계인들은 법의 준수와 질서유지의 관점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준거집단인 자신의 회사나 자신이 속한 조직사회와 일치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판단을 형성하여 갈등상황에 대처해 나갈 것이며 윤리적 개발수준이 후인습의 수준에 있는 회계인들은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에 대해 전형적으로 사회적 후생을 고려하면서 규범적인 규칙이나 관습을 뛰어 넘어 정의지향의 내면화된 윤리원칙에 따르는 행동을 취한다. 따라서 여섯 번째 연구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가설 6 : 회계인은 윤리개발 수준에 있어서 비회계인과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연구를 위한 자료는 설문지에 대한 예비조사(pilot test)를 먼저 실시하여 측정변수들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한 후 설문지의 일부내용을 수정하였으며 본 조사(main test)에서는 우편조사와 방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회계인 집단과 비회계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회계인 집단은 대학에서 회계교육을 받았고 현재 회계업무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들로 하였으며 비회계인 집단은 대학에서 회계교육을 받지 않았고 현재 회계업무

와 관련이 없는 자들로 사범대 출신의 교사와 공대 출신의 기술자들로 한다. 총 1,200부의 설문지를 세 집단에 각각 400부씩 배부하여 589부가 회수되었으며(회수율=49%),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응답내용이 부적합한 설문지 34부를 제외한 555부(이용가능율= 46%)가 본 연구의 유효한 설문으로 확정되었다. <표 1>에는 연구대상자의 구성분포를 제시하였다.

회계인의 문화적 특성과 윤리개발 수준에 대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 회계인 집단과 비회계인 집단을 비교하여 어떠한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고 우리

표 1. 연구대상자의 구성분포

		회계인 집단		교육자 집단		기술자 집단		총 계	
		설문수	구성비(%)	설문수	구성비(%)	설문수	구성비(%)	설문수	구성비(%)
성별	남자	70	41.2	123	62.8	114	60.3	307	55.3
	여자	100	58.8	73	37.2	75	39.7	248	44.7
연령	20대	99	58.2	28	14.3	89	47.1	216	38.9
	30대	44	25.9	79	40.3	68	36.0	191	34.4
	40대	24	14.1	76	38.8	26	13.8	126	22.7
	50대	3	1.8	11	5.6	6	3.2	20	3.6
	60대	-	-	2	1.0	-	-	2	0.4
근무 경력	1년	23	13.5	16	8.2	27	14.3	66	11.9
	1년-3년	35	20.6	14	7.1	32	16.9	81	14.6
	3년-5년	35	20.6	17	8.7	39	20.6	91	16.4
	5년-10년	45	26.5	34	17.3	54	28.6	133	24.0
	10년이상	32	18.8	115	58.7	37	19.6	184	33.3
결혼 여부	미혼	101	59.4	38	19.4	97	51.3	236	42.5
	기혼	69	40.6	158	80.6	92	48.7	319	57.5

표 2. 각 변수별 기술통계치

		표 본	평 균	표본편차
권력편중	회계인 집단	170	3.6382	0.9611
	교육자 집단	196	3.7662	0.7864
	기술자 집단	189	3.5220	0.9876
	합 계	555	3.6435	0.9170
불확실성 회피	회계인 집단	170	4.6882	0.6610
	교육자 집단	196	4.9735	0.6849
	기술자 집단	189	4.6624	0.6596
	합 계	555	4.7802	0.6830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회계인 집단	170	3.5059	0.6261
	교육자 집단	196	3.6398	0.5542
	기술자 집단	189	3.6169	0.6406
	합 계	555	3.5910	0.6085
남성주의와 여성주의	회계인 집단	170	4.1353	1.2777
	교육자 집단	196	3.8163	1.0987
	기술자 집단	189	3.9312	1.2422
	합 계	555	3.9532	1.2098
장·단기적 관점	회계인 집단	170	4.7559	0.7423
	교육자 집단	196	4.6365	0.7251
	기술자 집단	189	4.8413	0.7473
	합 계	555	4.7428	0.7416
윤리개발 수준	회계인 집단	170	5.5588	0.6485
	교육자 집단	196	5.5451	0.6750
	기술자 집단	189	5.5961	0.6075
	합 계	555	5.5667	0.6438

나라 회계인 집단의 윤리개발 수준을 분석하는 것으로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SPSS/PC 통계Package를 이용하여 ANOVA검증하였다.

IV. 분석결과

각 변수별 기술통계치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회계인 집단과 비회계인 집단(교육자, 기술자)의 두 집단을 대상으로 한 ANOVA검증과 회계인 집단, 교육자 집단, 기술자 집단의 세 집단을 대상으로 한 ANOVA검증의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세 집단간의 ANOVA검증의 결과는 가설 1, 가설 2, 가설 4, 가설 5, 즉 권력편중, 불확실성 회피, 남성주의와 여성주의, 장·단기 관점에서는 5%의 유의수준에서 세 집단간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계인 집단과 기술자 집단 및 교육자 집단을 한 집단으로 한 두 집단간의 ANOVA검증의 결과에서는 가설 2, 가설 3, 가설 4, 즉 불확실성 회피,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남성주의와 여성주의에서 두 집단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ANOVA 분석 결과

변 수	두 집단		세 집단	
	F값	P값	F값	P값
권력편중	0.009	0.924	3.444	0.033*
불확실성 회피	4.468	0.035*	12.712	0.000*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4.828	0.028*	2.478	0.085
남성주의와 여성주의	5.601	0.018*	3.237	0.040*
장·단기적 관점	0.076	0.849	3.743	0.024*
윤리개발 수준	0.036	0.849	0.320	0.726

* 유의수준 p=0.05

1. 가설 1의 검증

가설 1인 권력편중에 있어서는 세 집단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33). 구체적으로 평균에 있어서는 교육자 집단이 3.7662, 회계인 집단이 3.6382, 기술자 집단이 3.5220의 순으로 나타났다. 권력편중은 교육자 집단이 가장 낮으며 회계인 집단, 기술자 집단 순으로 교육자 집단과 회계인 집단은 상사에

게 권력이 편중되는 것을 기술자 집단보다는 싫어하며 상사의 명령위주인 체계를 싫어하는 성향이 기술자 집단보다는 강하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권력편중은 ANOVA분석에서 세 집단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들 세 집단간의 차이분석을 위하여 Tukey HSD방법을 이용해 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권력편중에 대한 세 집단간의 차이분석

	평균	표본오류	p-value
회계인 집단	3.6382	0.096	0.375
교육자 집단	3.7662		
회계인 집단	3.6382	0.097	0.451
기술자 집단	3.5220		
교육자 집단	3.7662	0.093	0.024*
기술자 집단	3.5220		

* 유의수준 p=0.05

권력편중에 있어서는 차이가 교육자 집단(평균, 3.7662)과 기술자 집단(평균, 3.5220)에서의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24) 회계인 집단과 교육자 집단, 그리고 회계인 집단과 기술자 집단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권력편중(평균, 3.6438)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영국, 호주, 독일 등의 선진국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권력편중이 높은 사회의 경우 총화되지 않은 개별적·질적 자료의 공시를 확대하거나 중간보고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등의 회계실무는 보고기업에게 상당한 저항감을 줄 것이다.

2. 가설 2의 검증

가설 2인 불확실성의 회피에서는 기술자 집단, 회계인 집단, 교육자 집단의 순으로 기술자 집단이 가장 높으며, 교육자 집단이 불확실성 회피에 있어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기술자 집단보다 교육자 집단과 회계인 집단은 고용이 안정적이며 이직율이 낮고 직무의 특성 때문에 추론할 수 있다. 불확실성의 회피에 대한 ANOVA분석에서 세 집단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들 세 집단간의 차이분석을 위하여 Tukey HSD방법을 이용해 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불확실성 회피에 대한 세 집단간의 차이분석

	평균	표본오류	p-value
회계인 집단	4.6882	0.070	0.000*
교육자 집단	4.9735		
회계인 집단	4.6882	0.071	0.929
기술자 집단	4.6624		
교육자 집단	4.9735	0.068	0.000*
기술자 집단	4.6624		

* 유의수준 $p=0.05$

불확실성의 회피에 있어서의 차이는 회계인 집단(평균, 4.6882)과 교육자 집단(평균, 4.9735)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00$), 교육자 집단과 기술자 집단(평균, 4.6624)에서도 유의적인 차이($p=0.00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회계인 집단과 기술자 집단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불확실성 회피(평균, 4.7802)는 유럽의 선진국에 비하여 아직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불확실성의 회피가 강한 사회의 경우 법률과 질서 및 엄격한 행동규범, 성문법과 규제의 요구,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진실성과 가치의 존중경향, 즉 통일성의 회계문화가 생성, 촉진될 것으로 추론된다.

3. 가설 3의 검증

가설 3인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에 있어서는 세 집단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에 있어서 집단간의 평균을 보면 회계인 집단(평균, 3.5059), 기술자 집단(평균, 3.6169), 교육자 집단(평균, 3.6398)의 순으로 집단주의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에서 보는 바와 세 집단 모두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에 있어서는 집단주의의 성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세 집단간에 차이가 없는데 이와 같은 이유는 최근 우리나라는 IMF 이후 국내 경제상태의 악화로 직장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하여 현재 직장에 대한 종속감이나 충성심 및 자기 가족에 대한 책임감 등이 세 집단 모두에서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한다.

4. 가설 4의 검증

가설 4인 남성주의와 여성주의에서는 회계인 집단(평균, 4.1353), 기술자 집단(평균, 3.9312), 교육자 집단(평균, 3.8163)의 순으로 남성주의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주의와 여성주의에 있어서는 연구 대상자에 남자 대상자와 여자 대상자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이들 혼합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남자 대상자와 여자대상자를 분리하여 ANOVA 검증을 한 결과 여자대상자를 제외한 ANOVA에서 세 집단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

표 6. 남성주의와 여성주의 대한 세 집단간의 차이분석

	평균	표본오류	p-value
회계인 집단	4.1353	0.126	0.031*
교육자 집단	3.8163		
회계인 집단	4.1353	0.127	0.245
기술자 집단	3.9312		
교육자 집단	3.8163	0.123	0.618
기술자 집단	3.9312		

* 유의수준 $p=0.05$

남성주의와 여성주의의 ANOVA분석에서 세 집단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들 세 집단간의 차이분석을 위하여 Tukey HSD방법을 이용해 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남성주의와 여성주의에 있어서의 차이는 회계인 집단(평균, 4.1353)과 교육자 집단(평균, 3.8163)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31$), 회계인 집단과 기술자 집단(평균, 3.9312) 및 교육자 집단과 기술자 집단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Gray(1988)에 의하면 남성주의는 관련성이 약하기는 하지만 보수주의와 기밀성과는 음의 관련성을 지닌다고 하였다. 관계, 겸손, 약자보호 및 생활의 질 등이 강조되는 여성주의 사회보다는 업적, 용맹 및 가시적 성공 등이 강조되는 남성주의 사회에서 훨씬 덜 보수적인 측정방법과 공개성이 촉진될 가능성이 있다.

5. 가설 5의 검증

가설 5인 장·단기적 관점에서는 기술자 집단(평균, 4.8413), 회계인 집단(평균, 4.7559), 교육자 집단(평균, 4.6365)의 순으로 기술자 집단이 가장 단기지향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자 집단이 가장 장기지향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단기적 관점에서 ANOVA분석에서 세 집단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들 세 집단간의 차이분석

2) 전체 연구대상자 중에서 남자는 307명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ANOVA검증 결과 평균은 3.9446, F값 4.784, p 값 0.009(유의수준 $p=0.05$)로 집단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을 위하여 Tukey HSD방법을 이용해 본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장·단기적 관점에 있어서의 차이는 교육자 집단(평균, 4.6365)과 기술자 집단(평균, 4.8413)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0.018$), 회계인 집단(평균, 4.7559)과 교육자 집단 및 회계인 집단과 기술자 집단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직무의 특성으로 교육자 집단의 경우는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미래 지향적인 사고와 근검절약 및 인내를 강조하여야 하기 때문이며 기술자 집단은 현재와 과거를 지향하고 사회적 책무의 달성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기지향적 관점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7. 장·단기적 관점에 대한 세 집단간의 차이분석

	평균	표본오류	p-value
회계인 집단	4.7559	0.077	0.271
교육자 집단	4.6365		
회계인 집단	4.7559	0.078	0.517
기술자 집단	4.8413		
교육자 집단	4.6365	0.075	0.018*
기술자 집단	4.8413		

* 유의수준 $p=0.05$

6. 가설 6의 검증

가설 6인 윤리개발 수준에 있어서는 세 집단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726$). 구체적으로 회계인 집단에서의 평균은 5.5588이며, 교육자 집단에서는 5.5451, 기술자 집단에서는 5.5961이다. 이렇게 윤리개발 수준에서 집단간에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이유는 세 집단 모두가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세 집단 모두에서 윤리 개발수준이 높은 단계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회계인의 윤리개발 수준은 가장 낮은 1단계에서부터 가장 높은 6단계 중에서 6단계에 속하며 회계인의 윤리인식 수준은 윤리적 인식수준에 비하여 행동이 보다 비윤리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보다는 동료가 더욱 비윤리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윤리기준을 강화하여 윤리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회계인의 문화적 특성과 윤리적 개발수준에 대한 연구로서 회계인의 문화적 특성과 윤리적 개발수준은 비회계인과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가설 1, 가설 2, 가설 4, 가설 5, 즉 권력편중, 불확실성 회피, 남성주의와 여성주의, 장·단기 관점에서는 5%의 유의수준에서 회계인 집단과 교육자 집단 및 기술자 집단간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p=0.033$, 0.000, 0.040, 0.024). 구체적으로 권력편중에서는 교육자 집단(평균, 3.7662)과 회계인 집단(평균 3.6382), 기술자 집단(평균, 3.5220)의 순으로 권력편중이 교육자 집단이 가장 낮으며 회계인 집단, 기술자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불확실성의 회피에서는 기술자 집단과 회계인 집단, 교육자 집단의 순으로 기술자 집단이 가장 높으며, 교육자 집단이 불확실성 회피에 있어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주의와 여성주의에 있어서는 회계인 집단, 기술자 집단, 교육자 집단의 순으로 남성주의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단기적 관점에서는 기술자 집단, 회계인 집단, 교육자 집단의 순으로 기술자 집단이 단기지향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자 집단이 가장 장기지향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회계인의 문화적 특성 및 윤리개발 수준은 회계교육과 회계인 고용계획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회계인의 건전한 조직문화의 형성에 기여하며 회계인의 도덕성 및 윤리의식의 합리적인 형성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교육과 직업훈련에서의 윤리 및 문화프로그램의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미래의 회계인들인 학생과 현재의 조직구성원에게 회계문화와 윤리에 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회계실무가 사회적인 비난을 피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모든 연구에 있어서와 같이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에 대한 표본추출이 확률표본추출이 아닌 임의표본추출이어서 본 연구의 표본이 우리나라의 회계인 집단과 비회계인 집단의 전체를 대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이용한 설문지는 일부 항목은 이미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문항도 있고 일부는 전문가와 토의에 의하여 작성하고 사전조사를 하였다고는 하지만 회계인의 문화적 특성과 윤리개발 수준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회계인의 문화적 특성과 윤리개발 수준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로써 본 연구를 기초로, 위에서 제시한 한계점을 보완한 회계와 문화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회계와 문화에 관한 연구의 결과는 회계실무나 회계기준설정 및 회계교육 등에 유용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1] 조용연, 회계감사인의 도덕추리와 조직몰입의 관련성, 대한경영학회지 제19호, 1998. pp. 599-626.

[2] 황윤식, 한국 회계제도의 문화적 관련성, 동국논집 제14집, 동국대학교, 1995. pp. 435-459.

[3] _____, 각국의 사회문화적 가치와 회계선택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제21권 제3호), 1996. pp. 137-161.

[4] Baker, C. R., 1976, An Investigation of Differences in Values : Accounting Majors Vs. Nonaccounting Majors, The Accounting Review 51(4), 886-890.

[5] Gray, J. T., 1963, Need and Values in Three Occupations,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42 : 242.

[6] Harrison, G. L., and Mckinnon, J. L., 1986, Culture and Accounting Change : A New Perspective on Coperate Reporting Regulation and Accounting

Policy Formulation, Accounting, Organization and Society 11(3) 233-252.

[7]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Beverly Hills, Calif: Sage.

[8] _____, and M. Bond. 1988. The Confucian Connection: From Cultural Roots to Economic Growth. Organizational Dynamics 4 : 5-21.

[9] _____, 1987, The Cultural Context of Accounting, in Cushing B.E.(ed), Accounting and Culture,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1-4.

[10] Kohlberg, L. 1969. Stage and sequence : The cognitive developmental approach to socialization. In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edited by D. A. Goslin, 347-480. Chicago, IL : Rand McNally

[11] _____, 1984. Essays on Moral Development Volume Two : The Psychology of Moral Development. San Francisco : Harper and Row.

저자소개



김남면
 1984년 인천대학교 경영학 학사
 1986년 한양대학교 경영학 석사
 1998년 한양대학교 경영학 박사
 1990년 ~ 현재 대전보건대학
 판매관리과 조교수